

# 40조 보험자산 넘겨받는 신한운용, AUM 100조 시대 연다

〈운용자산〉

신한라이프서 40조원 규모 이관  
“성과개선 등 상호윈윈 가능할 것”  
금융투자업계 3위 도약 기대감



조재민 신한자산운용 전통자산부문 대표(왼쪽 세번째)와 김희송 대체자산부문 대표(왼쪽 두번째)가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열린 통합자산운용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이 신한라이프로부터 40조원 규모의 자산을 이관받는다. 이를 통해 신한자산운용은 운용자산(AUM) 100조원 시대를 열게 되는데, 업계 3위 경쟁까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자산운용과 신한라이프는 자산 이관을 위한 이사회 의결을 각각 마친 상태다. 신한라이프는 신한금융그룹의 계열사로 신한생명과 오픈지라이프가 합병해 탄생했다.

신한자산운용 관계자는 “이달 중 자산을 이관할 계획”이라며 “신한라이프 자산 이관을 통해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성과 개선 등 상호 윈윈 전략이 가

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연내 완료하려던 자산 이관 계획을 앞당겨 마무리 지은 셈이다.

구체적인 이관 자산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40조원 가량의 자산이 이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가증권 중 보험사 특성상 국공채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신한라이프의 총 AUM은 59조원이다.

이 중 유가증권이 48조7636억원으로 전체 운용자산의 83%를 차지한다. 절반 이상이 국공채(26조원)이며, 특수채(9조원), 수익증권(5조원), 외화유가증권(4조원), 회사채(3조원) 등의 순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8월 말 기준 신한자산운용의 자산은 총 73조2440억원이다. 신한라이프의 자산 이관을 마칠 경우 110~120조원 규모로 급성장하게 된다. 같은 기간 업계 3위 규모인 KB자산운용(124조1705억원)과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신한라이프 내 증권운용팀 부서원들도 신한자산운용으로 자리를 이동할 예정이다. 부채연계투자(LDI) 본부를 새로 꾸린다는 계획이다. 신한금융그룹사 운용책임자(CIO)간 유기적인 시너지 효과로 중장기적 성과 창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신한자산운용은 지난해 BNP

파리바와의 합작관계를 마쳤으며, 올해 초 신한대체투자운용과 합병을 꾀했다. 이를 통해 집합투자기구운용보수가 100억원 가까이 늘어나며, 대형 종합자산운용사로서 경쟁력을 확보했다.

신한대체투자운용과 합병할 당시 KB자산운용 수장 출신인 조재민 대표를 영입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지난 1월 취임한 조 대표는 상장지수펀드(ETF) 상품다양화, 퇴직연금 타깃데이트펀드(TDF) 시장 점유율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국내 최초 외화 마니마켓펀드(MMF) 상품 출시도 준비 중이다.

또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운용담당본부장 직책을 주식 최고투자책임자(CIO)와 채권CIO로 격상 및 세분화시켰다. CIO가 각 부문에서 더 높은 책임과 전문성을 가지고 운용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 증권사, 추석연휴 해외주식 서비스 운영

美·中·日 등 대부분 국가 서비스 오는 12일 중국·홍콩시장은 휴장

국내 증권사들이 추석연휴기간에 해외 주식 투자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거래서비스를 휴무 없이 운영한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 대부분은 추석연휴기간동안 국내 시장을 제외한 미국, 중국, 일본, 홍콩 등 대부분 국가의 주식 거래가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운영한다.

국내 증시는 오는 9일, 12일 이틀간 휴장을 주말을 포함하면 4일간 주식 투자를 할 수 없다. 다만 오는 12일은 중추절 연휴로 인해 중국(상해, 심천)과

홍콩 시장이 휴장한다.

먼저 키움증권의 경우 나이트 데스크와 별개로 해외주식 담당자가 당직 형태로 근무에 나서며, 키움금융센터, 환전 서비스 등 평소 해외주식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한다.

메리츠증권 역시 추석연휴기간동안 해외시장 거래를 위한 해외주식·해외파생·차액결제거래(CFD) 데스크를 24시간 운영한다. HTS(홈 트레이딩 시스템), MTS(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등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더불어 원화로 해외주식 거래가 가능한 통합증권금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환전 신청 없이 해외주식 거래가 가능하다.

낮(오전 10시~오후 5시30분)에도 국내 최초로 미국 주식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삼성증권도 추석연휴에 거래를 지원한다.

NH투자증권도 추석연휴기간인 9일과 12일 해외주식 야간데스크를 운영한다. 추석 기간에도 온라인 HTS, MTS, 유선 등을 통해 주식 거래를 제공하며 고객이 해외주식 거래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외주식 야간데스크를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에서도 기존에 제공해온 해외주식 서비스를 연휴기간 동안 동일하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영석 기자 ys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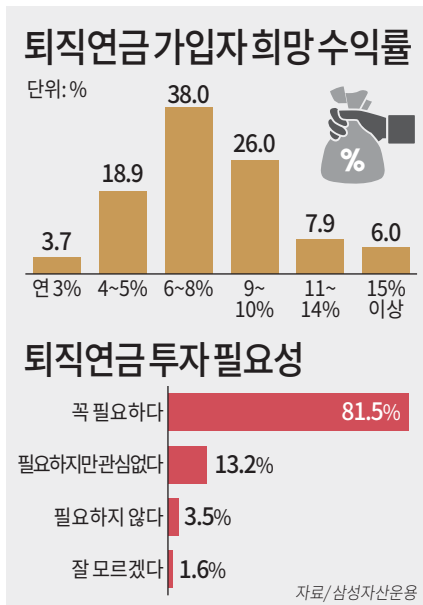
## 투자자 10명 중 4명 “퇴직연금 연 수익 6~8% 기대”

삼성자산운용, 퇴직연금 가입자 분석 81.5% “퇴직연금 투자 꼭 필요하다”

퇴직연금(DC·IRP) 가입자 10명 중 4명 가량은 연 수익률 6~8%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8명은 퇴직연금 투자가 꼭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10명 중 6명은 디폴트옵션 제도를 통한 투자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폴트옵션 가입 시 선택할 퇴직연금 상품으로는 타깃데이트펀드(TDF)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삼성자산운용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지도를 파악하기 위해 자사의 펀드 정보 비교 플랫폼인 ‘펀드솔루션’ 이용자 중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IRP) 퇴직연금에 가입한 개인 투자자 537명을 집중 분석했다고 7일 밝혔다.

퇴직연금 DC·IRP형에 가입한 투자자들이 원하는 퇴직연금 연 수익률 범위는 ‘6~8%’가 38%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9~10%’



(26.0%), ‘4~5%’(18.9%), ‘11%~14%’(7.9%), ‘15% 이상’(6%), ‘3%’(3.7%)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희망 수익률 범위를 분석하면 세대별로 조금씩 달라진다. 30대에서 50대의 투자자는 평균 36% 정도의 응답자가 연 수익률 ‘6~8%’를 가장 많은 비중으로 선택했

고, 두 번째로는 평균 27%의 응답자가 수익률 ‘9~10%’를 선택했다. 60대 이상의 투자자도 ‘6~8%’의 연 수익률을 희망한 비중이 전체의 72%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다음으로는 ‘4~5%’의 수익률을 선택해 좀 더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보였다.

퇴직연금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전체의 81.5%로 가장 많은 응답을 얻어 퇴직연금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필요하지만 관심이 없다’(13.2%), ‘필요하지 않다’(3.5%), ‘잘 모르겠다’(1.6%) 순으로 응답했다. 연령대별로 분석하면 ‘꼭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대(93.8%), 30대(91.0%), 40대(92.0%)가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50대와 60대의 경우 73.6%, 78.4%로 각각 나타났다.

디폴트옵션 제도를 통한 퇴직연금 투자 의향 또한 ‘투자 의향이 있다’가 전체의 64.8%로 가장 높았다.

/원관희 기자

## “작년매출 135% 이미 달성… 수익구조 탄탄”

### IPO 간담회

#### 오픈엠티테크놀로지

원천기술 기반 AI 반도체 IP 설계 현대차·SK하이닉스 등 협력관계

“AI 반도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상장 후 당사만의 성장동력을 강화해 글로벌 시장 확대와 매출 신장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성현 오픈엠티테크놀로지 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7년에 설립된 오픈엠티테크놀로지는 자체 보유한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AI 반도체 IP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전문 기업이다.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전방에서 시장 수요에 따라 AI 반도체 칩 설계에 필요한 핵심 기능 블록을 선형 개발하며, 해당 기능 블록을 반도체 칩 설계 회사(팹리스, 디자인하우스, 종합 반도체 업체 등)에 공급한다.

오픈엠티는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기업들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했고, 글로벌 톱티어 팹리스 업체를 포함해 현재 30건 이상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수익구조는 반도체 IP 공급에 따른 라이선스 요금과 동 IP가 적용된 고객사 반도체 칩 양산에 따른 개당 러닝로열티로 구성돼 있으며, 2022년 상반기에만 2021년 연간 매출의 135%를 달성했다.

오픈엠티는 상장을 통해 확보한 공모 자금을 5nm, 4nm 포함 최선단 공정 IP 제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연구개발과 IP 개발 전문 인력 확보, 글로벌 거점 확대와 같은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다.

오픈엠티의 총 공모 주식 수는 363만 6641주이고 1주당 공모 희망가격은 1만 5000원~1만 8000원, 총 공모금액은 545억원~655억원이다. 8일까지 기관 수요예측을 진행해 공모가를 확정하고, 15일과 16일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청약할 예정이다. 오는 26일 상장 예정이며 대표 주권사는 삼성증권이다. /원관희 기자 wkh@

## 롯데건설, AI 기반 현장 안전관리 나서

### ‘위험성평가 AI’ 프로그램 가동

롯데건설이 ‘위험성평가 AI’ 프로그램을 가동해 한 단계 수준 높은 AI 기반 안전관리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위험성평가 AI’ 프로그램은 롯데건설 안전관리 직원 및 파트너사 직원이 현장별로 작업내용, 위험요인 등을 등록하게 되면 데이터 취합 및 분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위험성평가란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모든 작업에 대한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대책을 선정해 실행하는 과정이다. 기존 위험성

평가는 종사자 경험에 의존하여 주관적으로 작성돼 위험요인이 누락되는 등 한계가 있었다.

위험성평가 AI 프로그램의 주요 기능으로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모든 건설현장의 위험성평가 분석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 및 롯데건설 작업 표준 매뉴얼 등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작업별 맞춤 위험성평가 추천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골라내는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을 기반한 위험성평가 오류 탐색 및 적정성 검토 등이 있다. /김대환 기자 kdh@